

이 한자리에 모여 차별없는 선법을 펼쳤다. 이날 법회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스님 1200

을 구제할지니…

국 선사 대법회

2000여명의 불자들이 법당과 사찰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번 무차선 대법회는 오전 10시 법요식을 시작으로 서옹 스님이 법회장 옆 상선원에서 법어를 내리면서 차별없는 법의 세계를 펼쳤다. 대회의 법주를 맡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眞際) 스님과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宗玄) 스님은 30분씩 법어를 한 후 납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법거량 시간을 가졌다.

응답을 대신했다.

: 한 스님이 나섰다.

선사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에 선사님께서 조주 스님을 대신하였 남전 스님께서 상서로운 상을 봤느냐 을 때, 뭐라고 이르시겠습니까?"

산승이 그 조주 도인의 사미가 되었던 동쪽에서 몇 걸음 걸어서 서쪽에 섰다 다시 서쪽에서 몇 걸음 걸어 동쪽에서 았다."

|제스님은 법거량에 앞서 법문에서 조 사미승과 남전 선사 사이에 오간 문답을 해주며 "대중은 남전 도인과 사미승의 알처를 알겠느냐?"고 물은 바 있는데, 대 이 아무 대답이 없자 "묻는 것은 답하는 있고, 답은 묻는데 있음이로다" 했다.

사시 질문이 이어졌다.

"어떤 것이 향상(向上)의 진리입니까?"

"만리에 백골(白骨)이 즐비함이로다."

"향하의 진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대지(大地)의 산과 물이로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담았습니까?"

"한마디도 담을 바가 없소."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간 바도 없는데 온 바가 있겠어?"

"지금 그 소리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억!"

"끝도 없는 광야에 세월 또한 무량광에 흔적도 없는 나는 무입니다.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만들어서 써 버리는데, 본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장자를 내리쳤다.

예정됐던 네 명의 질문이 끝났지만 재가자에게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다.

"부처와 중생, 마음은 차별이 없다했는데 증명해 보십시오"

"차별이 없다 해도 30방을 맞아야 해."

"조주스님이 머리에 짚신을 이고 나간 도리나 일러 보지."

질문자가 스님과 대중을 향해 절을 하자, 스님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해" 라며 단상을 내려갔다.

"불성은 진정한 자아·귀의처 인간정토 건립 최후의 근거"

정혜스님 법어·법거량



중국의 정혜 스님(70 · 조주 백림선사 방장)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으로 '생활선' 운동을 이끌고 있다.

점심공양 후 이어진 오후 법문은 중국의 정혜스님과 일본의 종현스님 순서로 이어졌다. 통역으로 진행된 오후 법회는 한 차례 법거량이 오간 후라 중국과 일본 스님들의 법거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정혜 스님은 '인성을 끌어올려 불성으로 돌아가자' 는 주제로 법문했다.

"현전하는 한 생각은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와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성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우리의 귀의처로서, 선종에서는 무위진인(無位眞人),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중생이 해탈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하고, 인간정토를 건립하는 최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불성을 등지고는 개인은 해탈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 역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재적인 마음의 평화가 없고서는 외재적인 평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한 생각을 잘 잡아쥐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문이 끝난 뒤 정혜 스님은 "오늘 오전 법문과 법거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러한 선문답은 마음의 교류인데 우리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문즉답(卽問卽答)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혜스님에게도 질문이 나왔다.

"옳다 해도 맞지 않고 그르다 해도 맞지 않다. 옳고 그름의 참 진리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억!"

"지금 '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님은 이미 법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 쓰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청정법신"

종현스님 법어·법거량

마지막으로 일본의 종현 스님의 법문 차례.

운문(雲門) 선사의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 법문을 소재로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만민화락(萬民和樂)의 극락정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스님은 "조용히 호흡을 고르면 브이게 된다" 고 스스로 답하고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이어갔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쓰고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들이 부처님과 같은 청정법신"이라고 미리 준비해온 한국말로 법문을 마무리 했다.

한 재가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고 묻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평상심으로 '이것이다' 하면 된다"는 말로 답했다.



일본의 종현 스님(54 · 후쿠오카 숭복사 조실)은 일본 임제종 최대 계파인 묘심사파(妙心寺派) 법사자(法嗣者)로 인가받았다.

김재경 · 천미희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진제 스님과 거침없는 선문답을 나눠 법회장을 깜짝 놀라게 한 묵산 스님은 서울 정릉 보림선원에 주석하고 있다. 82세의 노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법거량에 나선 묵산 스님은 한국 거사불교의 큰 봉우리로 평가받는 백봉 김기추 거사와 도반이자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의 조카 상좌이다. 묵산 스님은 이번 무차대회와 관련, "무차대회는 부처님도 입을 열지 못하는 무서운 자리"라며 "진제 스님이 거룩하게 무차대회를 베풀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묵산스님은 "앞으로 안목과 용기를 지닌 많은 선지식들이 제방의 선원에서 무차대회를 활발하게 열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19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35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82세 노구에도 불구 선문답 사자후

묵산스님 법거량 화제의 2인 금하스님

마이크 제거 시도한 외국인 스님



진제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막 법거량이 시작될 무렵, 순간적으로 단상에 뛰어올라 탁자를 치고 진제 스님의 마이크를 치우려 한 외국인 스님은 뜻밖에도 진제 스님의 유일한 외국인 상좌인 금하 스님. 진제스님은 "억! 이 여우같은 놈!"라며 웃음으로 받아 넘겼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법회장은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어, 진행된 선문답은 어느 회 무차법회보다 선기 번득이는 법거량이 오고간 무차법회의 서막을 알렸다. 금하 스님은 주한 미군 출신으로 태국에서 계를 받은 후, 봉선사에서 다시 비구계를 받았지만 진제스님 문하로 건당해 유일한 외국인 제자가 됐다. 금하 스님은 평상시 제방 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왔으며, 진제 스님은 항상 매우 엄하게 금하 스님을 지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하 스님의 행동은 일종의 법거량이었고 진제 스님은 이에 대해 '크게 틀렸다' 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선대회 이모저모

김 대통령 축하 메시지

○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정신문명 세계의 모색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참된 인간성, 불성을 깨닫고 추구하는 선(禪)사상은 21세기 새로운 정신문명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수좌회 등 적극 동참

○ 이번 무차대회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 비구니선문회 소속 스님들이 적극 참여했다.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과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을 중심으로 수좌들이 무차대회를 준비해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원 동춘스님 천운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1200여 비구, 비구니 수좌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처음이자 마지막 국제대회

○ 진제 스님은 대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3국의 깨달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무차법회 역시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는 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덕높은 선지식들이 무차법회를 계속 열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불교TV, TV-인터넷 생중계

○ 불교TV는 울산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의 사회와 동국대 선학과 종호스님의 해설로 케이블TV와 인터넷(해운정사 및 btn)을 통해 법회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재가자 '발심계기' 한목소리

○ '화두선 정진을 위한 발심의 계기가 됐다' 는 것이 재가자들의 반응. 젊은 시절 향곡 스님께 '이뭣고' 라는 화두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소식을 얻지 못했다는 김보명행(80, 부산시 기장군 좌천) 보살은 "죽기 전에 만사 제쳐두고 화두공부를 해야지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읍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해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